# 실질적인 대안 창출에 주력한다

## 학계 법조 사회운동가 확충 화쟁위원회 제2기 … 출범

조계종의 갈등조정기구인 화쟁위원회 제2기가 출범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5인의 화쟁위원회 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기 화쟁위원은 법등스님(조계종 호계원장), 도법스님(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장), 흥선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법안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지홍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퇴휴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원명스님(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운스님(중앙종회의원, 비구니),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남곡 논실마을학교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등 15명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장을 건네면서 "그간 화쟁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과 종단 내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2기 위원들도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화쟁위는 위촉식이 끝난 직후 제14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도법스님을, 부위원장엔 지홍스님과 김동건 변호사를 선출했다. 화쟁위원회는 불교계 안팎의 대립과 분쟁을 원효스님의 화쟁(和諍) 사상으로 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6월 설치된 종단 기구다. 그간 봉은사 직영 논란, 4대강 사업과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롯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다뤄왔다.

> "일반 언론에서도 쇄신 관련 움직임 '화쟁' 의미 주시
>
> 현대사회 여러 갈등 조화롭게 풀어내 국민 기대 부응할 것"

특히 2기 위원 인선에는 구체적인 대안창출능력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화쟁위원회의 설명이다. 학계와 법조인, 사회운동가를 추가로 기용해 갈등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장을 맡은 도법스님은 "일반 언론에서도 쇄신과 관련한 불교계의 움직임과 화쟁의 의미에 대해 주시하더라"며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법등스님

도법스님

흥선스님

법안스님

지홍스님

퇴휴스님

원명스님

일운스님

김동건

김종빈

이남곡

성태용

윤성식

조은수

박경준

# 종헌관련 종단 현안 점검

## 원로회의 소위원회, 제1차 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는 지난 7월27일 한국불교문화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 등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현해스님을 비롯해 종하·월탄·밀운·명선·인환·암도·원명·월서스님 등 도문스님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정 자격에 '연령 70세 이상', 원로의원 법계에 '대종사'를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 등 지난 원로회의에서 언급된 종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회의는 오는 6일 오후2시 같은 장소에서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모아진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은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원로회의는 제40회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기존 7명에서 10인으로 확대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제40회 회의에서 부결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종정 및 원로의원 자격, 멸빈자 사면 등에 대해 원로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 "원로회의 결정 존중"

## 중앙종회, 개정법안 이송 않기로 결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가 종헌개정안을 부결한 원로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총무원에 개정된 법을 이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단 쇄신법안을 포함한 제190회 임시종회에서 의결한 종헌·종법에 대한 법 공포가 유보될 전망이다.

중앙종회는 지난 7월25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종회의장 보선스님을 비롯해 의장단, 분과위원장 등 중진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원로회의에서 종헌개정안을 부결한 만큼 지난 임시종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공포를 강행한다면 자칫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원로회의 결정을 존중해 총무원에 개정된 법안을 이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의했다. 또한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종헌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법계'를 비롯해 원로회의에서 제안한 종헌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중앙종회 차원에서 재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종회 의장단, 분과위원장 명의로, 종교편향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7월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 김신의 지속적인 종교편향적 태도에 대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것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거부할 것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공직과 공식석상에서의 종교 편향적인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참회하고 일체 공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지난 7월27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설법전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22차 회의.

지난 7월24일 서울역사박물관 옆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를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관람에 앞서 김일란 홍지유 감독에게 "좋은 작품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김형주 기자

# '용산참사' 소재작 '두 개의 문' 관람

## 총무원장 자승스님 "좋은 작품" 격려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2009년 용산참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의 문'을 관람했다.

지난 7월24일 서울역사박물관 옆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를 찾은 총무원장 스님 일행은 영화를 관람하고 연출자를 비롯한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화 관람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공동 연출한 김일란 홍지유 감독에게 "좋은 작품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인사를 건넨 뒤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두 개의 문'은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를 전면으로 다룬 국내 첫 개봉작으로, 당시 경찰특공대원의 증언과 법정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러닝타임은 101분이며 현재까지 5만여명의 관객이 영화를 봤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용산참사 유가족을 위문하고 구속자에 대한 대통령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 산중총회법 교구종회법 '공감'

## 교구본사주지協, 회의 'BBS, 코바코 편입' 결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스님,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는 지난 7월27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설법전에서 22차 회의를 갖고, 종단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5개 교구본사주지 스님 가운데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산중총회법과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산중총회법과 교구종회법은 원안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미디어렙법 시행과 관련해 결의문도 채택했다. 기독교, 평화방송은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된 반면, 불교방송과 원음방송만 민영미디어렙에 편성된 것에 부당함을 공감하고 불교방송 광고판매를 기독교방송, 평화방송과 같이 코바코(KOBAK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총무원에서는 재무부장 일감스님이 참석해 원로회의 결과 및 중앙종회 의장단 간담회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원명스님이 선거법 개정 및 청규제정과 관련한 하반기 계획을 공유했다. 또 종단수익사업총괄특보 각운스님이 감로수 생수 판매, 달력, 선시연 국수 공양 등 수익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말사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본사 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봉선사=어현경 기자

# "불교방송, 코바코 편입돼야" <공영미디어렙>

## 총무원, 청와대 등에 공문 BBS "기독교방송과 차별"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광고판매를 기독교방송, 평화방송과 동일하게 공영미디어렙인 KOBAKO(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총무원장 자승스님 명의로 지난 7월24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능도스님(기획실장)은 이날 방통위와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해 공문을 전달하고,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방송은 국민의 정신과 가치를 함양하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인만큼 민영미디어렙인 SBS 미디어렙과의 결합판매보다는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에 광고판매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방송사의 광고 판매 위탁은 각 사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며 "스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 불교방송과 원음방송 등의 광고 판매를 SBS의 민영미디어렙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확정했고 7월25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달 안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불교방송은 공익적 성격의 종교방송임으로 기독교방송, 평화방송과 동일하게 공영미디어렙으로 지정된 코바코에 편입돼야 마땅하다"며 "지난 2월9일자로 제정된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는 공영미디어렙의 설립을 통해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대·발전시키고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의무코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 8월28일 종회의원 보궐선거 쌍계사 고운사

제13교구 쌍계사와 16교구 고운사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3교구 및 제16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고를 내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28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이면 입후보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와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서류를 갖추고 오는 14일부터 16일 오후5시까지 각 교구본사 종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각 교구 선관위는 종법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로서 교구 재적승,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 국장 이상 종무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승 등을 선거권자로 확정하고, 거주승 신고(7월28일~8월3일) 및 선거인명부 열람(8월19일~21일)을 통한 확인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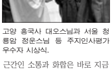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설선당과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선거에 대한 문의는 해당 교구본사 종무소로 하면 된다. 김하영 기자

※ '이종찬의 한시산책' 기사 넘쳐 쉽니다.

# "종단쇄신, 물러섬 없이 정진하자"

## 직할교구 주지 연수 인사평가 우수자 시상

불기2556년도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연수 교육이 지난 7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됐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진행한 이번 연수교육에는 교구 사찰 주지 스님 176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 앞선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총무원은 소통과 화합을 기본으로 종단 쇄신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정진하겠다"며 "종단 운영의 근간인 소통과 화합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지 스님의 참여에서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은 "도심포교, 특히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할교구도 도심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흥국사 대오스님과 서울 청룡암 정운스님 등 주지인사평가 우수자 시상식.

이날 입재식에는 지난 4월 직할교구 정기 주지인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과 서울 청룡암 주지 정운스님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번 연수교육은 종무행정 안내에 이어 이점수 법무사의 '사찰의 재산운영 방법' 강의를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 △조계사 실례를 통한 사찰 행사의 성공사례(조계사 행정국장 성진스님) △종단 쇄신입법 안내(남전스님) 등의 강의로 이어졌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 불교닷컴, 멸빈자 산하 언론인가?

## 대불청 호법단 회견

'불교닷컴'이 제주 관음사 사태 관련 멸빈된 자가 대표(법명 중원)로 있는 사단법인 불지회 소속 언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호법단은 지난 7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법단에 따르면, 불교닷컴은 201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후원인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불교닷컴은 당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불지회가 불교닷컴을 인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가 "2009년 8월경 불교닷컴이 사단법인 불지회 산하로 소속됐다"고 스스로 밝히고, 홍무흡 씨 등 불지회 이사 역시 이사장 및 이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불교닷컴을 불지회가 인수했다는 것이다.

대불청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5월23일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불청은 "멸빈된 해종자와의 관계가 드러난 만큼 발로참회를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강력한 퇴출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